

승리는 원한과 미움을  
남고 패한 자는 괴로워  
하며 산다. 적정에 든 자는 승패를 버리고  
인락하게 산다  
(法句經·안락품 201절)

## 등록금 인상률 15%로 최종합의

1차등록 60.3% - 추가 등록기간 오는 13일까지  
총학 오는 11일 등투 보고 및 동국중흥 선포식 개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93학년도 등록금협상이 지난 3일 인상률 15%로 최종합의됐다.  
(관련인터뷰 7면)  
최종합의에서는 서울·경주 각 단과대 대표자와 총학집행 부등이 학생측대표로 학교측에서는 민병천 총장이자 각 처 실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합의 문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된 합의문은 전문과 서울·경주 캠퍼스 단위 복지 요구안이 수렴했으며 전문을 통해 학교당국과 학생측은 '민족동맹 자주중흥의 대의'라 등록금고지서 합의발부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당국은 전문에서 생활이 합의된 부족합의서 이행 약속했다.  
부속합의서에 기재된 서울·경주캠퍼스 각 단위복지 요구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장기적인 도서관 전면 개보

수 실시  
·매장 및 휴게시설 확충  
·강의환경 개선 및 예술대 가 건물 전망 확보  
·각 단과대 학습공간 확보위한 강의실 다용도화  
·기타 문화및 환경사업  
·취업문제해결위한 토대 마련  
·장학금 수혜액 확대  
·복지사업공통관리위원회 신설  
(경주캠퍼스)  
·중·장기 마스터플랜 제시  
·부총장 권한확대 및 정전적 독자 행정 구축  
·건물및시설확보(도서관포함)  
·서울·경주간 온라인 행정망 구축  
·교직원확충  
이날 합의된 위사항의 학생측 이행 요구에 민총장은 '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등록금 인상을 2.5% 인하는 기존 등록금 인상률로 학교측이 내세운 17.5%에 대

해 학생측이 예결산자료상 타당성이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합의됐다.  
올해 등록금협상이 타결됨으로써 1차등록이 지난 4.5.6일 3일간 실시됐으며 경리과의 발표에 따르면 60.3%의 등록금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등록은 11일부터 13일까지 있게되며 이미 가납 형태로 수납된 신입생등록금의 인하차액분은 합의문에 따라 무조건 환불을 원칙으로 그 시기와 방법은 신입생 학년대표 자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총학총회는 오는 11일 도서관앞에서 '등록금 투쟁 보고대회및 동국중흥선포식'이라는 제목으로 올레 첫 집회를 상정하고 있다. 이 집회의 의의에 대해 제25대 총학총회장 최순호(국교·4)군은 "등록금투쟁의 결과를 학습들에게 알리고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이며 총학총회의 향후 투쟁목표가 될 등록금투쟁에 대한 의미



△지난2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 92년 등록금 최종합의식을 마무리하면서 민병천총장과 서울캠퍼스 최순호총학총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하며 악수하고 있다

될 등록금투쟁에 대한 의미  
신전과 향후 투쟁방향 설정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9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열려

동국의 새로운 주인으로 서라

93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 2천3백61명에 대한 입학식이 지난 2일 오전11시 오목원 이사장, 민병천총장등 학교관계자와 신입생, 재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관장에서 열렸다. (관련사진 7면)  
입학식은 삼귀례,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총장식사, 이사장 치사, 동창회장 축사, 장학증서 수여, 학·실·처장 및 부속기관장 소개, 총학총회장 인사, 교가제창,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입생 선서는 총4백85.7점중 4백63.7점을 받아 공중수석을 한 박재준(컴공·1)군이 됐다.  
민총장은 "동국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동국의 이상과 여러분의 미래를 영예롭게 개척할 바란다"고

가 선언,신입생 선서, 총장식사, 이사장 치사, 동창회장 축사, 장학증서 수여, 학·실·처장 및 부속기관장 소개, 총학총회장 인사, 교가제창,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입생 선서는 총4백85.7점중 4백63.7점을 받아 공중수석을 한 박재준(컴공·1)군이 됐다.  
민총장은 "동국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동국의 이상과 여러분의 미래를 영예롭게 개척할 바란다"고

입학식사를 통해 당부했다.  
이사장 치사를 통해 오 이사장은 "진리앞에 겸손하며,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대장부의 기개로써 조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생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은 동재원(법·1)군은 신입생선서를 한 박재준군과 동점으로 공중수석을 차지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93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4일 11시 신입생학부모 및 재학생 내외귀빈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무관에서 열렸다.

### 정명호군 석방 윤남진군등 사면

지난 91년5월 '민자당사 기습 집거 전대협 구국 결사대'로 활동한 정명호(인철·4)군이 지난 6일 정부에서 단행한 사면을 통해 석방되었다.  
또한 지난 90년 '반미구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됐던 경찰 윤남진(경행·4)군도 이번 사면으로 풀려났다.  
한편 화염병 투척, 민자당사 집거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용철(지교·4)군, 유치건(역교·4)군, 이문환(사회·4)군 등도 사면조치 됐다

### 교수동정

▲오형근(불교학)=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동서양 문화교류의 역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마카오에서 열린 국제학술 발표회 참석  
▲이순룡(경영학)=오는 17일부터 1년간 미국 미시간대학을 연구차 체류  
▲알림  
본사 인쇄소 변경(에케토시조판시스템)으로 이번호(1117호)부터 일부 신문형식이 바뀌었습니다.

### 경주 자연과학관 공사 7월 완공

설계변경등으로 일정지연돼

93학년도 3월 완공예정이었던 경주캠퍼스 자연과학관이 4개월가량 늦은 7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밝혀졌다.  
자연과학관은 현재 내부공사에 들어갔으며 공사진척률은 70%정도이다.  
이번 공사가 늦춰진 원인에 대해 한 관계자는 "각 실험실 전기, 상·하수도, 가스시설, 배기후드시설등의 설계 변경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설계도가 부분 변경된 상황에 대해 박수근 사무처장은 "자연과학관 공사가 시작되기전 자연대 각 학과 특성에 맞는 실험실 배치와 정적 공간등에 대해 각 학과장 및 학생들과의 사전논의가 불충분한 관계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나 여수없이 자체조사를 설계변경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사는 착공때부터 '공

### 제35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인문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에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 명  
②응시자격: 1학년 남·여재학생  
③모집분야: 일반 및 문화·사진기자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⑤원서접수: 서울 3월 19일(금) 오후4시까지  
경주 3월 26일(금) 오후4시까지  
⑥시험일자: 서울 3월 19일(금) 오후5시  
경주 3월 26일(금) 오후5시  
⑦시험과목: 1차 필기-상식, 논술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학원관 J201(서울캠퍼스)  
원료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 보리수

황량한 벌판에서 맹수에게 쫓기는 사슴이 요행히 빈 우물을 만나게 된다  
물은 없었으나 뛰이 내리 기에는 너무나 깊었다. 다행히도 언덕에서 우물로 들어진 칠년굴이 있어서 그걸 잡고 우물 중간쯤에 매달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우선 위기를 모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물 밑에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고 우물 위에는 뒤쫓던 맹수가 턱 버티고 있었다. 또 자세히 보니 매달려 있는 칠년굴 밑 동을 권리와 검은 쥐가 번갈아 먹어 먹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끊어질 것이 분명하였다. 여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 안수정등(岸樹井藤)

다시 우물 위로 올라가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길밖에 없었다. 그에게 그럴 용기가 없었다. 자꾸만 끊어져가는 칠년굴에 막무가내로 대항하여 매달려 있는데, 바로 머리 위 나뭇가지에 벌집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꿀이 그의 입가에 닿는 것이 아닌가 그는 꿀을 혀로 핥으면 꿀방울은 인간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오욕락(五欲樂)을 비유한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자기 자신에 철저하지 못하면서도 남의 티끌은 침소봉대하여 들추어 보려는 습성은 금물중에 금물이다. 활나를 살다가는 인생이, 꿈속에서 꿈을 꾸

히 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다. 생과 사가 틀어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행하는 이도 말만일 뿐 행동은 영달리 하는 수가 허다하다.  
크나큰 바다가 온갖 것을 수용하지만 시체만은 밖으로 밀어 내고야 만다는 것이다. 불법이 향준하는 일월성신이 이 세상을 맑게 비추고 있는 한 싯된 무리들의 멸망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문명시대는 나누는 몫이 같고 누리는 몫도 같으며 정의에 대한 가치기준도 같으리라고 본다.  
93학년 신입생은 입사에서 탈락한 동료의 몸가치 해내야 되는 짐이 있다. 당연히 승자가 져야되는 짐이기에... 4년후 안수정등의 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운 알차게 살자.  
崔玄覺

### 국제인문문화사

굳이 프로스트의 '가지않은 길'을  
떠올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때때로 선택하지 않은 인생에 대해 미련을 보인 적은  
없습니까?  
우리 삶의 꺾점을 에워싸고 있는 그 선택때문에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미련이나 후회에 앞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택은 언제나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을까요?  
행여 습관적인 선택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놓쳐버린 것은  
없었습니까?  
혹 아니면 백, 에스 아니면 노우, 적 아니면 아군,  
혹은 이것 아니면 저것...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린 수많은 '가지못한 길'—  
그 경험과 인생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젊은 당신이라면, 때로는 강도높은 목소리로 사회를  
논하고 때로는 사태지가 되어 출출 수 있는 인생을  
체험해 보십시오.  
결국 진실은 하나로 통한다는 진리만을 잊지 않는다면  
젊은 날의 경험이란 말을 수록 좋은 일입니다.  
젊은 당신이 '가지않은 길'을 위해 시사저널과 TV저널이  
함께 합니다.

시사저널 TV저널  
정기구독신청 (02)733-3330 정기구독신청 (02)720-8111

# 경주자치권 확보시급

## 재단의 파행적 부총장 낙점 철회되어야

88년의 '학원자주화투쟁' 이후 가장 크게 경주Campus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이 '직선 부총장' 문제였다. 우리의 어른을 우리 손으로 선출하려는 의지가 뭉쳐져 결국에는 신원재 부총장이 직선으로 선출되게 되었고, 93년, 재단의 경주부총장 임명낙점사태로 인하여 그 노력은 일거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교수회에서 선출한 2인의 교수님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교수를 부총장으로 영등한 교수를 임명한 재단과 여겨야 할 의의성명이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교수회, 이러한 것이 오늘 경주campus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진다.

학생들의 항의에 대해 무기정각이라는 중징계로 대처하는 학교, 인사권은 재단의 고유권한이므로 학생들이 간섭

할 수 없다"는 재단의 일방적 설명 이러한 것이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명분은 되지 못한다. 경주Campus의 자치권과 독자행정은 우리 스스로가 생략해야 하는 부분이며, 경주Campus가 올바른 서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부총장은 우리의 교수님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하며,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적절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총장의 권한 강화와 직선, 그리고 독자행정 구축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나타날때,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공동적인 인식변화가 있을때만이 이룰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경주Campus 15년의 역사속에서 한낱 '지방분부'라는 오욕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하며, 멋진 동국의 일주체로 뚜렷이 서야할 시점이

다. 양적,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그 속에서 부당한 재단의 낙점인사 철회와 민주적 선 부총장 선출, 이와 더불어 이제는 경주 자치권 확보와 독자행정 구축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총학생회는 93년을 경주 자치권 확보투쟁의 원년으로 삼아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며, 학원내에 진정한 민주제단이 들어서고, 그래서 동국발전과 중흥이라는 대의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동국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경주의 모든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고, 파급력 투쟁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안창문  
(상경대 경제학과)

### 열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260-3491-2

# 에비대학 본래취지 되살려야

매년 새내기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행사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에비대학! 요즘 에비대학은 (조금씩 단적으로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에비디스코텍과 동일부호로 일맥상통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명 에비대학은 합격이라는 단어가 모든것을 보장해 줄거라는 이런 당위적인 생각들에 매몰되어 있을 새내기들에게 대학생활의 다양함과 진정한 뜻을 추구해낼 수 있는 한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지는 취지아래 출발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를 망각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조급한 시사적이고 강도있는 강의를 비롯한 각종 행사들! 그들이 차지해야 할 자리는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고, 싸이키조메아레 공명공황 울려대는 따르노는 기계음알에 새내기와 현내기들의 어질픈 몸짓은 주연으로 등장한다.

이런 새대는 새내기들의 호응도와 참여도만을 주시한

채 높이문화 위주로 기타행사들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준비하는 주희측도 원원제공자가 되겠지만, 이젠 합격했으니 당구 및 담배와 디스코텍을 눈치 안보고 즐길수 있는 것이 대학문화와 대학생활의 전부인양 잘못 감지하여 순간적 쾌락에 만족을 느끼려 하고 생각과 인내력을 요구하는 그런 행사들은 등신인 하려는 새내기들의 의식이 더 큰 원인이자 원원인 것이다.

해마다 새내기와 현내기의 물갈이가 되고 이 물갈이는 직접적으로 에비대학이라는 장소에서 이뤄진다. 올해도 치렀고 앞으로도 계속 치러질 에비대학! 세상에 변하지 않는것은 좀처럼 없다지만, 변화속에 발전 또한 있다지만 기본취지를 벗어난 변화가 과연 올바른 변화인가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은희  
(인문대 국문과)

**조대시**  
(인문대 국문과)

**봄 밤**

밤을, 누군가 퍼워대는 바람이 계수나무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마음의 녹슨 곡괭이 근처 지주 폐광으로 얼룩져 있는 날이면 단단한 침묵의 덩어리,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게다가 따라 움직이는 별, 또렷하게 그러나 누구는 우리별 1호를 주시하고 있었지. 낮은 배개를 끌어안고 꿈결엔듯 자주 깨어났다. 일어나라 동창이 난 이부자리를 걸고 침리를 걷는. 발병이 난 산동성이 위에 진달래꽃 한 송이 피어났다. 역센 몸부림과 타오르는 불꽃에 대해 소심한 자, 그대를 사할 수 없노라고 전향으로 부터 절교장을 받아들였다. 공중에 뜬 시린 발바닥 어디로 가야만 하나 하늘에서 삼바들이 떨어져 나왔다. 이런 날이면 모두들 축축히 젖은 벌이 되어 몇 번인가 어둠 속에서 반짝거렸다.

# 재단전입금 확충요구돼

동국중중, 재단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등록금투쟁(이하 등투)에 임하고 있는 제25대 총학생회는 지난 27일 제6차 등록금 협상에서 등록금 15% 인상에 합의하고 여러 복지요구안도 타결했다고 한다.

학교측의 일방고지서 발부로 인해 해마다 등록금 투쟁을 거쳐 제정함을 하여 등투성과를 올려 받아 왔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져 예년의 등투와 달리 좀더 발전적인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질수 있으나 재단참여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재단은 눈앞의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선으로 동국중중에 동참해야 한다. 매년 15%이상의 등록금 인

상은 학생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이렇게 뒷날만 계속된다면 학교는 돈있는 사람만 다니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 통계에도 있듯이 대학에 대한 국가 재단의 지원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는 재단전입금이 전무한 상태이다. 87년의 자랑찬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훌륭한 선배님들을 배출시킨 우리민족 동국대학교가 왜 '삼국대'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수 밖에 없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전동국원은 동지야! 함께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

강인준  
(야간강좌 경제학과)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학우들의 알권리 충족시켜야

농촌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농업이 쇠퇴함에 따라 국가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져 이 시점에서 농업문제에 관해 언급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환해짐을 느낄수 있었다.

실제 통상압력의 강화, 중국의 값싼 농산물의 대량 수

입등 총체적인 농업위기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읽을수록 있어 우리가 조금이나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D기피현상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1차 산업의 쇠퇴를 선전국형 경제구조로 변한다는 낙관론적 입장의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1차산업 즉 농업

의 쇠퇴는 결국 산업기반 자체의 붕괴를 대변함으로써 결코 낙관적일수 없다.

전국농민대회 취재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농민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각인할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다"라는 말처럼 학우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시선스런게 지면화 되기를 바란다.

변재석  
(농과대 입학과)

# 새내기 새로 배움터...

## 신후배 신뢰감 싹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학과 신입생 평성규입니다. 원해서 온 불교학과이지만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다녀오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거기다 새로운 세태도 범주사로 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여태까지 들어온 O-T와 달라서 불안함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새 터를 다녀온 후 이러한 불안함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간생활이었지만 대

학이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불교학과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약간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고, 신입생을 특히 학생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 발우공양을 하고, 기합을 받으며 산행을 하고나서 느낀 것은 신입생 모두가 처음하는 절간생활이지만 아주 좋았다가 이 글을 쓰는 저는 동국대학교 특색, 불교학과를 선택한 것이 무한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 화이팅!

평성규  
(불교대 불교학과)

# 동문/잡/법

신입생 후배들에게!  
신입생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비빌 하우수속의 화초가 아니다. 여러분은 동국이란 넓은 배움의 나라에 온 것이다. 그 동국의 광장 한 가운데 태어난 자비와 지혜광명을 의미하는 불상이 서 계시고, 지혜를 상징하는 원로교사가 장광원을 의호하며 신입생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한다. 여러분은 부모와 선생님의 자상하신 지도의 품속을 벗어나 자율과 자주성이 요구되는 성숙된 세계를 맞이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야 할 소중한 사년의 시간을 확보한 행운아들이다.

신입생 여러분에게!  
신입생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비빌 하우수속의 화초가 아니다. 여러분은 동국이란 넓은 배움의 나라에 온 것이다. 그 동국의 광장 한 가운데 태어난 자비와 지혜광명을 의미하는 불상이 서 계시고, 지혜를 상징하는 원로교사가 장광원을 의호하며 신입생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한다. 여러분은 부모와 선생님의 자상하신 지도의 품속을 벗어나 자율과 자주성이 요구되는 성숙된 세계를 맞이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야 할 소중한 사년의 시간을 확보한 행운아들이다.



머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인연해 통하여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다. 동시에 인생과 우주의 진리를 추구하며 거룩하신 삼보에 귀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충만한 인격체이신 나의 근형이신 천운스님처럼 끝없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싶다.

삼십여년전 내가 본교에 입학하여 아카사야 향내음이 진동하고 아카사야 향내음이 시공간에 울려서인제 교양영이 시간에 O.Henry의 'After

제 나의 위치가 그 이야기 내용과 조금은 유사점이 있는듯 하여 쓸쓸한 마음이 지울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나의 지나온 삶을 크게 후회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삶은 영원불멸의 영속성을 지닌 영혼의 흐름으로 파악하기 때문이거나 방향은 보다 크고 가치 있는 영연한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신입생 여러분은 이러한 방향을 따를이 하지않고, '하면된다'는 신념을 갖고 창의적인 노력을 하여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서양속담에 'Afate is a web of his own weaving.'이란 말이 있다. 운명이란 스스로 짠 옷감과 같다는 뜻일 것이다.

신입생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훌륭한 불교와의 만남이 있기를 본전에 간절히 축원하는 바이다.

이대성  
(대신교 교사·불교학과 73졸)

매체비평  
대통령취임보도

#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노력

하여 불교와는 거리가 먼 영문학을 전공해 되었고, 결국 동국학교 영어교사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처럼 인생의 좌표를 잃고 방황하며 표류하던 어느날 나의 친은스님께서 '년 누구 위해 중을 올리니?'라는 화두를 던지셨을때, 나는 늦게나마 크게 깨달은 바

나의 동년배 또는 후배의 강의를 가슴에 새기면서 피곤하고 공부할 의욕이 사라져 버렸다. 열심히 강의를 듣고있다. 비록 어린시절의 꿈인 대학교수는 될 수 없을지라도 나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성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알고 열심히 불교학을 연구하고 수행하

29yenty Years라는 글을 재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새롭다. 절친했던 어린시절의 친구가 되고 훗날 한사람은 전과자가 되고 또다른 한사람은 순경이 되어 조우하게된 기구한 운명을 묘사한 흥미있는 이야기이다. 꼭 이와 유사한 운명은 아닐지라도 어찌던 현

29yenty Years라는 글을 재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새롭다. 절친했던 어린시절의 친구가 되고 훗날 한사람은 전과자가 되고 훗날 한사람은 순경이 되어 조우하게된 기구한 운명을 묘사한 흥미있는 이야기이다. 꼭 이와 유사한 운명은 아닐지라도 어찌던 현

# 이대성

이대성  
(대신교 교사·불교학과 73졸)

# 목격골

축하합니다  
■ 새내기들이 너희들의 입학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회계92선배가  
■ 3월12일 우리 전국의 생일을 축하해요. 앞으로도 계속 드림칠고 북창치는 소리는 하지말고 술먹었으면 이제 제발 끊게 자라.  
— 뿔뚜기  
■ 회계 3학년 김순동 부과대표양 선을 축하한다. 가문의 영광이여.  
— K-C-C  
■ 입학 축하드립니다! 멋진 학창생활이 되기를 바래요.  
— 야간강좌 경영학과 4학년 선배들  
■ 새내기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 제9대 회계(夜) 학생회  
■ 병기형 생일축하해요. 무럭무럭 자라는 한해가 되길...  
— 사랑스런 후배성숙  
■ 선재야! 우리 지속하자. 위젯은 끝났으니 월경에 속~시원하냐. 안그냐?  
— 경영90 너의파트너  
■ 영등포(女)高 32, 38기 새내기들! 입학 축하합니다. 3월12일 날~만나요.  
— 선배일동  
■ 해동아! 생일축하해!  
— 사륜스톤으로부터

■ 93석관 새내기를 합식 축하해!  
— 경영의X가  
■ 현의형, 정석이형, 재영이형의 복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유수호스텔 14대학생회  
■ 기계공학과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멋지고 훌륭한 과를 만들어 봅시다.  
— 신세계를 향한 힘찬도약 잘나갈 R/C학회 우리 자동차 와이프!  
— R-C CAP  
■ 호우회 20기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 1971 임원단  
■ 이과대 새내기 여러분 입학 축하합니다.  
— 이과대 품물패 장/산/꽃/매  
■ 문과대 각과 학년대표 여러분 개장을 축하하며 건강하세요.  
— 문과대 대의원의장  
■ 성영이형, 재우형 복학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신입생도 축하해요. 멋진 동아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 MRA 회원일동  
■ 35회 동국문화회원 여러분 너무너무 예뻐요. 입학축하드립니다.  
— 문화회 선배모두가  
■ 김혜수보다 더 예쁜 최혜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백상진국이의 생일도 축하해요.  
— 아리랑  
■ 흥성고 후배님을 입학축하합니다.  
— 흥고 선배일동

# 동학! 광장

이성욱  
■ 열린교육 참된사람 교육학과 학우들 힘차게 시작합니다  
—92가  
■ 교육학과 여행소모임 열대별벽의 탄생을 경축합니다.  
— 교육 93  
■ 윤리학과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 축하합니다.  
— 여러분의 다정한 누이  
■ 토목공학과 새내기 여러분 입학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화희장  
■ 축하합니다  
■ AD-Rush 광고 제작팀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두고봐요.  
— 경영 늬은이  
■ 알립니다  
■ 동국 유수호스텔에서 3월20~21일 일반 동학인 모두가 참가하는 Open Host-telling(여행)을 갖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D-H-Y  
■ 미림 남장인! 여러분 다음주에 동문회 있습니다. 성대해 결혼하는데요.  
— 경-기가  
■ 열심히 합시다  
■ 사법시험 1차에 도전하시는 법대 학우여러분 힘내세요.  
— 늘 여러분을 응원하는 87

# 온방골

■ 야간강좌 정보관리학과 세로 데어났습니다. 우리의 방을 찾고 있어요.  
— 야간강좌 정보관리 신입생 일동  
■ 93수원의 아그들! 그대를 앞을 슬과 학점과 미남-미녀가 있으라  
— 회장 백  
■ 야간강좌 정보관리학과 93새내기 여러분 공부열심히 하고 내내 건강하세요.  
— 언제나 굳건히 여러분을 믿는 사리야!  
■ 새학기에도 좀더 발전하는 그리고... 그럼 인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를 답습니다.  
— 메롱이  
■ 동국대학교 문학패 연합(건)은 잘할수 있습니다. 문학은 아끼는 모든 벗들의 건물을 빌려.  
— 동문연(건) 주체  
■ 4학년 여러분! 힘찬 출발로 앞진 결심 거듭시다.  
— 늘 여러분 곁에 있을 과대표  
■ 그리고...  
■ 창주, 남기, 세욱, 효선 의무고시 2차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 계산고시학과 고  
■ 따뜻한 인간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문을 활짝열고 들어오십시오.  
— 농어촌 연구부

■ 야간강좌 정보관리학과 세로 데어났습니다. 우리의 방을 찾고 있어요.  
— 야간강좌 정보관리 신입생 일동  
■ 93수원의 아그들! 그대를 앞을 슬과 학점과 미남-미녀가 있으라  
— 회장 백  
■ 야간강좌 정보관리학과 93새내기 여러분 공부열심히 하고 내내 건강하세요.  
— 언제나 굳건히 여러분을 믿는 사리야!  
■ 새학기에도 좀더 발전하는 그리고... 그럼 인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를 답습니다.  
— 메롱이  
■ 동국대학교 문학패 연합(건)은 잘할수 있습니다. 문학은 아끼는 모든 벗들의 건물을 빌려.  
— 동문연(건) 주체  
■ 4학년 여러분! 힘찬 출발로 앞진 결심 거듭시다.  
— 늘 여러분 곁에 있을 과대표  
■ 그리고...  
■ 창주, 남기, 세욱, 효선 의무고시 2차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 계산고시학과 고  
■ 따뜻한 인간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문을 활짝열고 들어오십시오.  
— 농어촌 연구부

■ 야간강좌 정보관리학과 세로 데어났습니다. 우리의 방을 찾고 있어요.  
— 야간강좌 정보관리 신입생 일동  
■ 93수원의 아그들! 그대를 앞을 슬과 학점과 미남-미녀가 있으라  
— 회장 백  
■ 야간강좌 정보관리학과 93새내기 여러분 공부열심히 하고 내내 건강하세요.  
— 언제나 굳건히 여러분을 믿는 사리야!  
■ 새학기에도 좀더 발전하는 그리고... 그럼 인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를 답습니다.  
— 메롱이  
■ 동국대학교 문학패 연합(건)은 잘할수 있습니다. 문학은 아끼는 모든 벗들의 건물을 빌려.  
— 동문연(건) 주체  
■ 4학년 여러분! 힘찬 출발로 앞진 결심 거듭시다.  
— 늘 여러분 곁에 있을 과대표  
■ 그리고...  
■ 창주, 남기, 세욱, 효선 의무고시 2차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 계산고시학과 고  
■ 따뜻한 인간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문을 활짝열고 들어오십시오.  
— 농어촌 연구부

■ 야간강좌 정보관리학과 세로 데어났습니다. 우리의 방을 찾고 있어요.  
— 야간강좌 정보관리 신입생 일동  
■ 93수원의 아그들! 그대를 앞을 슬과 학점과 미남-미녀가 있으라  
— 회장 백  
■ 야간강좌 정보관리학과 93새내기 여러분 공부열심히 하고 내내 건강하세요.  
— 언제나 굳건히 여러분을 믿는 사리야!  
■ 새학기에도 좀더 발전하는 그리고... 그럼 인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를 답습니다.  
— 메롱이  
■ 동국대학교 문학패 연합(건)은 잘할수 있습니다. 문학은 아끼는 모든 벗들의 건물을 빌려.  
— 동문연(건) 주체  
■ 4학년 여러분! 힘찬 출발로 앞진 결심 거듭시다.  
— 늘 여러분 곁에 있을 과대표  
■ 그리고...  
■ 창주, 남기, 세욱, 효선 의무고시 2차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 계산고시학과 고  
■ 따뜻한 인간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문을 활짝열고 들어오십시오.  
— 농어촌 연구부

사설

이제 '동국중흥' 첫발을

사립대학의 학기초는 비상하다. 매년 학기초가 되면 동사대별로 터져 나오는 등록금 문제를 놓고 학교당국과 학생측은 필연적인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

지난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이후 공식처럼 제기되는 등록금 문제는 일정한 간섭을 학내구성원들의 관심사로 대두돼 왔다. 이미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교당국의 높은 인상률에 반대, 납부연기 및 인상률 동결을 촉구하면서 재단의 전입금확충등 교육환경 개선비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본교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등록금 협의는 지난 3월 학교당국-학생측이 15%인상률을 적용, 고지서 합의발부에 최종합의함으로써 등록금문제가 일단락된 상태다.

이와같은 학교당국-학생측의 고지서 합의발부조치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등록금부쟁하면 제기되는 생각으로 학교당국의 고지서 일방발부에 반발, 학생회측의 4월중순까지 인상률을 정경으로한 투쟁전개, 재단전입금의 확충을 요구하는 재단혁신외의 진화, 등록금 2-3%인상으로 거절되다시피 했다. 즉 이전의 경우 재단혁신이 최우선목표이면서 재단혁신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투쟁과 재단혁신은 정리되는 한계와 오류의 연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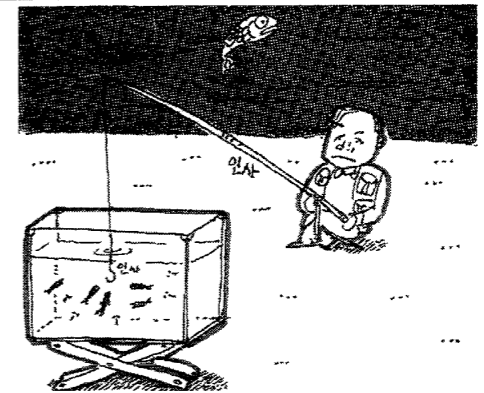
이점을 감안했을 때 93년 등록금 문제를 놓고 학교당국-학생회측이 최종합의한 공동합의문 도출은 몇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등록금문제는 학생들간의 문제가 아닌 교수·직원·학생등 학내구성원 전체가 학교발전에서 연대할수 있는 범위로 확대되었다는 점. 둘째, 동국중흥의 관점에서 재단혁신의 명실상부한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 등을 꼽을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재단의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움직임은 한층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의 학기초부터 대두된 투쟁 및 재단혁신외의 정경시점에 이르러 대부분의 학내구성원들은 뚜렷한 성과물을 남기지 못한 불명확한 역량소라는 여론을 형성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등록금을 둘러싼 재단문제들이 비단 본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안고있는 재정난의 해결책은 시급한 실정이다. 즉 사립대학재정의 빈약한 재정난이 높은 등록금인상을 부추겼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없다. 재단측의 실질적인 재단전입금이 빈약한 상태에서 해마다 등록금의 증가는 명분 사립대학의 파국을 초래하는 제1의 요소로 간주된다. 학생회측에서 학교발전에 대한 의지로 제기하는 재단혁신의 요구는 결코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니다. 이번 학교당국-학생회측의 고지서 합의발부는 이전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로 여겨진다. 학내구성원 모두가 학교발전에 대한 의지의 공식선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도 제기했듯이 93년 등록금-재단혁신문제는 이전의 양상과 다르다. 따라서 학내구성원들은 이번 합의를 빈약한 재단전입금의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 나아가 동국중흥의 새로운 출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재단의 입장표명이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재단의 권위는 또한 유지되지 않는다. 재단의 변화를 요구하는 학내구성원들의 바람은 더이상 쌓이기만 할수는 없다. 이점에서 향후 총학생회가 중심이 돼 추진될 '학교발전과 동국 되살리기'를 주제로한 '동국중흥 한마당', '학교발전을 위한 100억 기금조성운동' 등은 동국중흥을 열망하는 동국인의 힘찬의지의 표명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조대만 평

최경인



신한국 창조 '어항에서 뭍적튀기'

며칠전 김영삼 대통령은 한완상통일원장과의 대담에서 총칼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군사정권이 그의 후신인 노경원과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김영삼시대 또는 김영삼정권이 지 6공2기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제 집권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경원의 성격규정은 있을 수 없고, 형식논리상으로는 6공2기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성격규정은 실제의 정권이 이뤄놓은 결과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후세의 역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순수문명정권, 개혁정권, 민족자주정권, 통일정권, 김영삼시대 등을 지칭할 수는 있어도 또 이런 지칭은 권장될 성질이 아닌 지칭만 자기 스스로 성격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과연 이런 개혁정권이 통일정권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의 인사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현 남한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요청과 민족사적 인식, 철학적 바탕, 실천의지와 능력, 도덕적 품성 등이 얼마나 제대로 갖춰진 사람을 기용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대 시대적 요청

민족사적 과제나 시대적 요청을 단지 글쓴이의 민족사적 인식에 한정하여 요약한다면 첫째 민족자주적이고 동질성회복 지향적인 대북한 관계개선과 통일에 접근, 둘째, 군부통치와 군사문화의 유산을 권력체제나 시민사회의 수준에서 완전히 제거하여 민주적 기틀 마련 셋째, 경제적 불균등 분배로 인한 계급갈등의 소지를 완화하고 민중의 기초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의 전면적 도입 넷째 지역패권주의를 청산하고 호남에 대한 고립화를 근절할 획기적 조치 다섯째 권위주의,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의 사회부조리를 척결하여 최소한의 도덕적 기틀 확립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얼마나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대북한 관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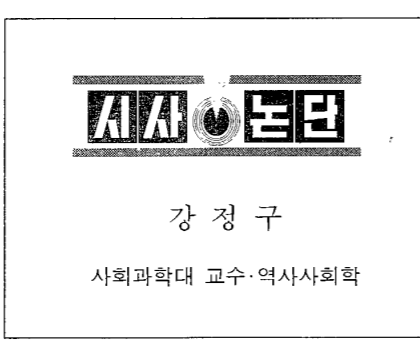
첫째 대북한 관계개선과 통일관련 조성이란 과제의 핵심은 미국의 패권, 제국주의적 간섭을 얼마나 저지하여 민족자주적이고 민족중심적인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현재 한미관계의 구조적 조건, 국가감내정책의 혼란으로 보아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은 기대하기 힘들다. 총란에 의존한, 그래서 정통성을 전혀 갖지 못한 과거의 군사독재자들은 대미자주정책을 취할 경우 자신들의 권력유지가 미국의 간섭에 의해 왜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미공존을 앞장서 펼치왔다. 그러나 현정권은 어느 정도 정통성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대미자주노선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된 좋은 여건을 가졌다.

외무부, 안기부, 외교안보수석, 통일원 등의 인선을 볼때 비록 제한된 구조적 한계내에서나마 보다 합리적이고 민족주의적인(미약하나마) 정책을 펴나갈 여지가 있음은 다행스럽다. 정종욱, 수석이 취임기자회견에서 핵문제에 너무 덜미가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또 금년중의 획기적인 진전을 공약하는 한장관의 발언은 최소한 고무적이다. 안기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국정운영방안은 남북합의서를 이제 좀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 같다.

그러나 역시 관건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간섭을 발상전환과 전민족적 의지에 의해 얼마나 막느냐하는 점이다. 따라서 현정권과 전채 민족구성원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족통일과 북한문제를 푸는데 동참하는 민족사의 주체가 되어야겠다. 3월 6일자 중앙일보에는 미국대사가 새정부 핵정책의 전환가능

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했지만 이 '관심'의 표현은 바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내정간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 때문에 공노명을 미국과 일본에 파견해 해명한다는 정부방침은 단적으로 역대 남한이 얼마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간섭하에 놓여있었는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참고로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 민족중심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핵에 관한 남한정부는 박종진 전외무부 장관이 밝힌 대로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단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미국정보도 자기들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서 핵개발이 2년, 심지어 6개월, 10년 등 수시로 왔다갔다한다. 또한 북한입장에서는 핵개발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며, 유일한 대응책일 수



강정구

사회과학대 교수-역사사회학

결 지향으로 나아가 군부 비대화의 물적토대를 약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과제를 현정권하에서 완결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그 확고한 기틀은 닦아야 한다. 이번 가나인 역정의 출발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민중생존권 보장

셋째 과제는 가장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대부분 경제각료들이 3공시절부터 성장세일주의에 경도되어 있고 사회적 정의나 분배정의, 기초생존권,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란 것 같다. 대부분의 남한 경제학자들이 그렇듯이 시장의 자동조절작용, 자유경쟁, 사유재산의 신성시 등 맹신하는 신고전학파의 한계를



우선 인사 개혁부터 시작해야

민권, 선별적 비판으로 7공 전인 필요 새정부의 개혁 전망과 한계

밖에 없다. 그것은 남한의 군사비가 북한군사비의 2배가 넘는 상황에서 재래식무기의 수입이나 개발이라는 점에서 남한을 당할 재간이 없다. 또한 주한미군의 엄청난 무력과 전략핵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북한으로서의 합의를대로 남북이 군축을 실행하고 미국의 적대적인 위협이 사라지기까지 이런 위협에 대처할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 핵무기 개발인 것이다. 또한 일본의 플라토늄의 대대적 도입은 일본 핵무장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의존하지 않고도 위협받지 않는 조건을 조정하는 정책이야말로 민족중심적인 핵정책이다. 이런 정책 시도도 없이 남한정부에서 강제핵사찰이나 안보리제소나 하는 정책은 제국주의 미국의 장단에 꼭두각시 춤을 추는 정책이라는 점을 우리는 깊게 각성해야 한다. 아울러 수구세력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간섭이 결합해 신정부의 그런대로 참신한 대북정책을 저지시키려는 반민족적 음모를 모든 민족세력이 결합해 무력화시켜야 할 것이다.

남어설 수 없는 인적 구성이 이번 경제팀의 특색이다. 이러한 한계때문인지 장기적인 경제구조의 개혁 등에 대한 포부나 지향 및 비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행정실무가형으로 자신을 성격규정하는 듯하다. 이런 밑에서 미래지향의 복지사회 청사진 운운은 전혀 제격이 아닌 것 같다.

이를 잘 반영하듯이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사회의 핵심적인 몫을 해야하는 보사부장관인 임정남 부총장부인과 부부인, 위장 전입, 외제승용차 예찬론자, 봉급생활자보다 세금을 적게내는 탈세자, 도덕불감증 환자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특권층이 개혁의 주역으로 등장했으니 서민들의 고뇌는 1만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정권은 출산율 위주의 경제운영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어, 새 정권하에서도 역시 민중의 생존권위협은 지속될 것 같고 계급갈등의 소지는 확산되며 신한국건설을 위한 고공의 분담은 민중들에 편향적으로 기증될 것 같다.

지역 패권주의 해소

네째, 지역패권주의의 과제는 인사의 지역안배 정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피상적이고 안이한 인식을 가진 듯하다. TK지역패권주의는 PK지역패권주의로 대체되고, 또 다음 권력교체기에 서로 연합하여 경상지역패권주의 모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호남지역 안배의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는 전혀 호남인의 환과 응이리를 진단하고 풀어줄 수 있는 제목이 되지 못한다. 정책 또한 광주항쟁의 진상규명을 통해 최소한의 역사적 단죄나 내리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타파하려는 의지 또한 박약하다. 이래서는 신라의 지역패권주의에 시달리는 것보다 일본으로 이주하는 길을 택한 백제유랑민의 한과 오늘날 호남인의

민권이 이에 관련되어 있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는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언론과 민권에 의해 가혹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틀로 새정권은 스스로 위상정립했다. 이러한 역사적 계기를 늦게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경제개혁을 위한 일부 고풍물거리는 수구세력들이 경관조기에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지의하에 무더기로 흠집내려는 음모이다. 계약세력 또한 전면적 부정비리가 아니라 선별적 비판논리로 지원과 비판을 겸하는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이러한 민권에 의한 도덕적·법률적 검증은 새정부인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군 및 학계에 이르기까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의 동국대 인사정책도 이러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곧 민권에 의한 검증용 제도화하여 보직내용 교수제를 포함한 시정해야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우리 모두는 민족사의 주체

통일시대라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맞아 출범한 현정권은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측면에서 개혁지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도와 사회구조에 이르기까지 민족사적 과제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다음단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적 바탕이 없는 인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서울시장의 경우와 같이 단호한 조치를 재빨리 내리야 한다. 친분과 정 의에 의해 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수구세력의 반격에 의해 우리의 민족사는 또다시 정체되거나 퇴행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뜻을 올리는 개혁선이 좌초하거나 되돌아 올 수 없도록 새정권의 강력한 개혁의지의 지속, 민중의 열기, 지식인의 비판정신, 언론의 거듭남, 기독교의 자기비판과 참회, 수구세력에 대한 목조르기가 서로 융합되어야 한다. 개혁의 방향 또한 좀더 인물과 운영의 차원에서 구조바꿈의 차원으로 승화되는 변증법적 지양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민족사의 주체로 자신을 자리매김해야 할 시대적 임무를 띠고 있다.

\*21세기를 여는 현대의 첨단기술 - 그 주역을 찾아서 (현대전자편)

“가로 1cm, 세로 2cm의 작은 칩 속에 우리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 꿈의 차세대 반도체 64MD램 개발 —

반도체산업은 시간의 싸움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신문 512페이지를 가로1cm 세로2cm의 작은 칩속에 기억시킬 수 있는 꿈의 차세대 반도체 64MD램 - 우리는 89년 1MD램을 개발한지 3년 4개월만에 4MD램, 16MD램을 거쳐 64MD램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신한국에서도 6년전에는 연구기간을 반으로 단축하는 등 당당히 반도체산업 세계정상 대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릴 시간은 잠시 뿐, 우리의 젊음과 패기는 '256MD램 개발'이라는 더 큰 도전의 벽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벽도 머지않아 넘어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겐 우수한 인력과 아낌없는 투자는 물론이고 반드시 해내고야 마겠다는 적극적 연구의지가 있기에...

現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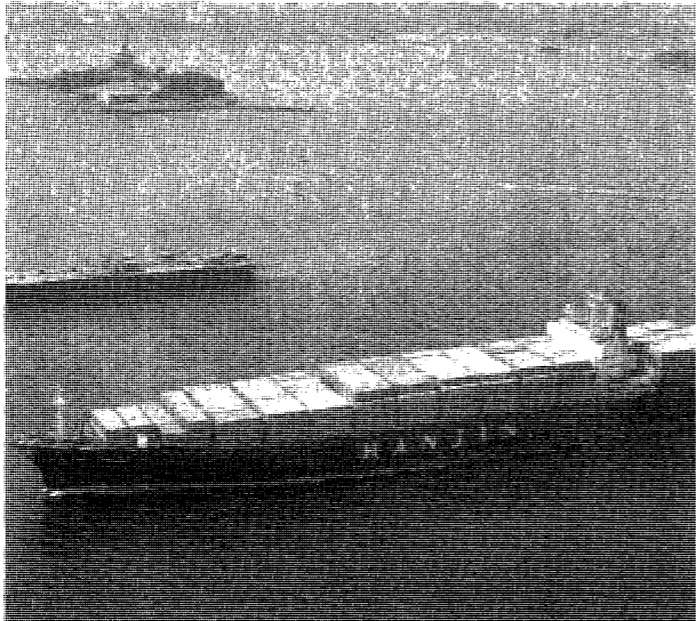
# 통상압력의 보호막 '해외통관법인'

## 통관비용 30% 절감효과 기대 관련업체 심리전으로 설립지연

해외 현지에서 대미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내 수출입상품의 통관편의를 제공키위해 추진중인 해외통관법인이 늦어도 올 6월이면 설립업무 개시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해외통관법인설립추진위는 관련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다.

통관법인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수출입 상품의 물류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한미통상마찰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많은 업체들의 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편집자)

그동안 설립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통관법인설립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다. 85년 10월, 당국의 현지 출장 실무조사팀을 시발로 해마다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업계에서는 이에따른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그 성과는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업무를 맡는 해외통관법인 설립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그 당시 우리업체들이 합선규정 위반으로 미국세관에 압수된 사례만 보아도 3백62건, 2천2백만달러(89년 통계)에 달했으며 일부 종합상사인 D사는 3천4백만달러의 벌금까지 문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제원준출금제도 구체적인 실무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련업체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국내 '중합상사등 무역업체 6. 해운. 운송업체 6. 창고업체 3. 제조업체 4. 통관업체 6. 공익법인 2. 건설업 1. 개인 1. 등 총 29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출자형태)을 구성해 설립추진위원회 통관법인 추진위는 지난 10월1일 대지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미국내 통관법인 설립문제는 89년 이후부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관세규정이 자주바뀌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과점권을 잃거나 수출상품을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는 등 통관마찰이 자주 발생하자 우리 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새정부는 지난 6일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사면조치를 단행했지만 유서대립 사건으로 구속된 강기훈씨 등의 양심수는 지금도 감옥에 있다 (사진은 올해 2월12일 조계사에서 열린 '양심수 전원 석방' 법회 모습)

# 사상 최대규모 " 그러나 '속빈강정'

## 3.6사면조치의 실제

'건국 이래 사상 최대규모' (7)라는 3.6사면조치가 단행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이전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짓눌러온 권위주의 통치의 그늘을 씻어내고 국민적 대화합과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일차적 조치로 대사면을 단행할 것을 약속해 왔다. 오랜 분단과 억압 속에서 긴장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그리고 민족생존의 확보를 위해 애써온 사람들이 제반 악법으로 탄압 받고 수많은 양심수가 양산되어온 어두운 현실앞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광복된 과오의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사면을 통하여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해제 그리고 전면적인 권리회복이 이루어져 정치 적 반대세력이 공존하라는 활력있게 사회발전이 참여하는 참된 민주사회의 출발을 기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면조치는 사면의 본래 취지와 달리 또 그간의 화려했던 선전과는 달리 실제 사면의 폭과 형식에 있어 대단히 미흡하고 기만

적인 조치이다. 민가협의 조사 결과 93년 3월 6일 현재 양심수가 514명 (기결 394명, 미결 120명)으로 확인됐는데 반해 514명의 28%에 해당하는 144명만을 석방했을 뿐이다. 또한 석방의 형식도 일반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형식적인 조치를 취해 '사면'의 근본적인 취지를 잃어버린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번 3.6석방자 144명 중 대부분은 권역형기를 불과 2-3일을 남겨두었거나 적어도 올해내로 석방될 조건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임종석(전대협 3기 의장) 등 전대협 학생들, 서경원 전 의원, 강기훈씨 등 514명의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지 않고 '대국민화합 차원의 대사면'이라고 떠들어 댈 수 있는가?

또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유형(제일동포, 65세, 13년복역)씨는 위암과 후두암 3기인 위독한 상태로 석방직후 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위급한 처지였음에도 석방조치에 서제외되었다. (손유형씨 가족은 병

블러스를 대기해놓고 석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43년 복역중인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대전교도소, 69세)씨를 비롯하여 20년 이상 복역자 28명이 석방되지 못했고 70세 이상 고령자 12명 중 6명만이 출소했을 뿐이다. 대사면이나 대화합이라는 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와 20년 이상 복역자는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분단과 냉전의 멍에를 지고 수십년간 옥중에 있는 장기복역양심수는 비극적인 우리 현대사가 배태한 고통의 상징이다. 따라서 주인공인 전지에서 뿐만 아니라 냉전종식과 민족화해의 전지에서도 이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사면의 진정한 뜻이 민주화와 민족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화해에 있다고 할때, 이는 구속자 석방과 수배해제 등으로 지난 시대의 갈등을 청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민주적 권리를 누리며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간에 양심수를 양산할 수 밖에 없었던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주의의 개폐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현재 감옥에는 이번 사면조치에서 풀려나지 못한 양심수가 370여 명이 있다. 이들 양심수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이제껏 우리가 쌓아온 성과를 토대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양심수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는 일에서부터 양심수 문제를 사회문제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통한 압력으로 궁극적인 사면을 청취해야 한다.

양심수 석방운동은 대중적 지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심수 가족과 친지,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만적인 3.6사면 조치에 대한 폭로 및 규탄등의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사면의 실제적인 후속 사면조치를 획득하기 위한 대중 여론형성 등 새로운 조건하에서의 석방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양심수를 양산하는 법과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다.

남규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 지희현 (동문 입학 92졸)

## 동약로

동약로를 오르고 있던 지난 9일 석공과 93학년 새내기라고 자신을 소개한 신입생으로부터 이상한 질문을 받았다.

"저, '엘에이비비' 건물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엘(L)이란 '동국관일텐데' 하고 곰곰히 생각해보다가 그 신입생이 영어실습강의가 있는 어학실습실(LAB)의 B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한참만에 깨닫게 되었다.

직접 교수회관까지 데려가 2층이라고 알려주자 그 신입생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했다.

돌아오는 길에 웃음도 나오고 "나도 그랬던가"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원지 선배로서 해줄 일을 못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다 단과대나 학과마다 신

## 엘에이비비 건물

입생현영주간이나 상권하니 하며 새내기 맞기에 여념없었다.

학내 게시판에는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학생회, 동문회들의 대자보가 어지럽게 붙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약의 선배들은 새

랑을 주는 것은 아닐게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학교생활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선배가 알려줄 수 있는 조언·설명들이 필요한 때다. 수강신청방법이나 도서관 이용방법, 그리고 교양과정이 수배문에 강의등을 찾아 온 동약에 해는 수고스러움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형, 대학출입이수학점이 뭐예요?"

"도서관에서 도서관대출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재학증명서를 떼야하는데... 이런 것들이 신입생들의 요즘 주요 궁금한 내용들일 것이다.

경쟁하듯이 좀 더 크게 '환영합니다'라는 대자보를 붙이기 보다는 이제는 동국관은 어디고 학원권이 어디며 (M.L)은 동국관 강의동의 구분이라는 설명이 적힌 대자보를 붙여보자.

신입생들에게 선배사랑을 보여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박수호 기자)

**80년 전통의 종로서적은 오랜 경험으로 대학인에게 편리한 교재구입을 제공합니다**

**신학기 대학교재 완전 구비!!**

- 6. 문예관·외국서적관
- 5. 자연관·컴퓨터·레코드
- 4. 인문관·방송대교재·문구
- 3. 사회관·학생관
- 2. 기독관
- 1. 예매권·잡지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바로 위

**종로서적**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84-9  
대표전화 : 733-2331(매장) · 732-2331(사무실)

• 영입시간 평일 오전 9:00~오후 9:00 일요일 휴무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00~오후 9:00 일요일 휴무  
• 영업시간 평일 오전 9:00~오후 9:00 일요일 휴무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아니, 이런 수가.....' 하고 놀랍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재미있다'로 시작해서 '아니 이런 수가.....'로 책을 읽습니다.

**기독교는 참종교, 참진리인데.....**

● 볼테르, J.J. 루소, J.S 밀 등이 기독교를 미신, 거짓 종교라 조롱하고, 성자(聖者) 소리를 듣는 톨스토이가 기독교인을 보고 '야만적인 최면술과 기만 속에 빠져있는 무지몽매한 민중'이라 했을까?  
● 금세기 최고의 석학인 버트런드 러셀이 기독교를 아예 미신이라 하고, 누구보다 더 신(神)의 존재를 믿었던 A. 토인비, 아스퍼스, 아인슈타인 같은 서양의 지식인들이 왜 기독교를 가짜신, 거짓 종교라고 했을까?  
기독교는 참종교, 참진리인데.....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이런 책 한번 정도는 읽어보아야겠지요

**한쪽 뺨맛고 성질내신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22절~23절

원어 선생 지음 신국판 440원 값 6,500원

이제까지 이렇게 재미있고, 쉽고, 확실하게 기독교에 대하여 말해 준 책이 있었을까

61 민성 TEL 733-2520(내선) FAX 733-7709

**'93 호주 교육 박람회**

"세계적 학문수준과 촉망받은 자원을 지닌 미래의 나라 호주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 '93 호주 교육 박람회'에서 호주의 각 학교 안내책자를 비롯하여 호주유학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확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참가 학교 : 호주대학교, 진문대학, 종교대학교, 영어학교 등 약 40개교
- 일시·장소 : 3월 18일(목) 오후 12:00~오후 6:00 부산 상공회의소 3월 20~21일(토, 일) 오후 12:00~오후 6:00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개별면담은 항상 가능하며, 학교세미나가 행사 당일 진행됩니다.
- '93 호주 교육 박람회' 임장은 무료이며,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 기념행사 : PSET 영어정서대회 및 영어 선택평가 부상 : 호주 항공 항공권 및 기념품 증정

시 간	부선 (3/18, 목요일)	서울 (3/20, 토요일)	서울 (3/21, 일요일)
12:00	영어 연수	영어 연수	영어 연수
12:40	간담회	전문대학과정	전문대학과정
2:00	환경 공학	공과대학과정	컴퓨터공학
2:40	컴퓨터		

# “알고 활용하면 캠퍼스는 넓다”

## 부업알선, 휴게실 등 복지 시설 곳곳에

대학생활을 한 지 이제 일주일 남지 않은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모든 것들이 낯설지만 할 것이다. 복잡한 수강신청, 낯선 교정들은 신입생들에게 금강줄기를 갖게 하기 일쑤다. 과 선배들에게 도서관 이용이나 도서관방문법이나, 졸업이수학점이 어찌하니 매년 들어도 의문은 남게 마련일테고 이렇게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초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의 해결을 돕고자 이 글 앞에서는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의 교내 학생이용기수소개와 학사 내용등의 대학적 안내를 통해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길잡이가 되려고 한다

실시 있으며 각종 목록, 백과사전등 도서·박사 학위논문이 구비된 참고도서 및 학위논문실 등이 위치해 있다. 편의 대출은 2층에 자리한 일반도서 구비된 대출실과 과제도서실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대출시에는 전산화 시스템이 본격화되는 5월이전까지 도서차량증을 이용한 대출이 가능하다. 도서차량증은 1학기 등록이 끝나는 13일 이후에나 발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등록금납부 영수증과 개인사진 1매를 구비해 열람과 (도서관1층)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대출요령은 도서관 2층에서 원하는 책과 도서차량증을 제시하면 된다. 한편 도서대출시 몇가지 규정이 있는데 첫째 대출기간은 3책 10일에 한하며 (연기시에는 다른 이용자의 대출요구가 없거나 시험기간의 해 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주 요일은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환절기 감기로 고생하는 신입생들이 있다면 본관2층 불교대학생회실 복도 앞 보건소로 가면 이미 정평있는 한방감기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되며 희망학생은 방중이나 학기중이나 관계없이 취업과 관련된 부업의뢰접수철을 통해 근무조건을 확인한 뒤 희망하는 근무처 기록카드에 명단 및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이밖에도 학비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취업과에서 협조하는 부업알선외에 매학기 초 선발되는 행정부서근로장학성에 지원·선발되면 월 13만원과 등록금증기성비 면제혜택을 받게된다. (자세한 사항은 본관 2층 장학과)

으로 실시하며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위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시행해 주고 있다. 이용에 관심있는 학생은 연구소(교수회관3층)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여학생부처장실** 이틀래던 여학생들의 휴게실이다. 학림관(사범대 건물)옆에 자리한 지상 2층의 계산관에 자리하고 있으며 1층은 타자기, 컴퓨터, 피아노 등이 설치돼 있으며 2층은 담소를 나누거나 공부할 수 있는 여권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꽃꽂이 특강들이 진행되며 앞으로 2층 휴게실에 헬스기구도 갖추 예정이다.

(편집자)

### 서울캠퍼스

#### 학교시설안내

##### 중앙도서관

크게 도서대출과 열람실 운영의 두가지 기능이 있으며 지상4층, 지하1층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총별 구조를 보면 1층과 4층은 2천여권의 좌석을 갖춘 일반열람실이며 2층에는 다양한 교양도서 구비된 일반열람실, 전공학술도서 중심의 과제도서실, 불교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소장하고 있는 불교학자료실이 자리해 있다. 3층에는 전문학술지와 국내·외 정기·부정기 간행물, 신문등이 비치된 정기간행물

(편집자)

### 경주캠퍼스

#### 학교시설안내

##### 중앙도서관

크게 도서대출과 열람실 운영의 두가지 기능이 있으며 지상4층, 지하1층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총별 구조를 보면 1층과 4층은 2천여권의 좌석을 갖춘 일반열람실이며 2층에는 다양한 교양도서 구비된 일반열람실, 전공학술도서 중심의 과제도서실, 불교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소장하고 있는 불교학자료실이 자리해 있다. 3층에는 전문학술지와 국내·외 정기·부정기 간행물, 신문등이 비치된 정기간행물

(편집자)

### 서울캠퍼스

#### 학교시설안내

##### 중앙도서관

크게 도서대출과 열람실 운영의 두가지 기능이 있으며 지상4층, 지하1층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총별 구조를 보면 1층과 4층은 2천여권의 좌석을 갖춘 일반열람실이며 2층에는 다양한 교양도서 구비된 일반열람실, 전공학술도서 중심의 과제도서실, 불교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소장하고 있는 불교학자료실이 자리해 있다. 3층에는 전문학술지와 국내·외 정기·부정기 간행물, 신문등이 비치된 정기간행물

(편집자)

### 경주캠퍼스

#### 학교시설안내

##### 중앙도서관

크게 도서대출과 열람실 운영의 두가지 기능이 있으며 지상4층, 지하1층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총별 구조를 보면 1층과 4층은 2천여권의 좌석을 갖춘 일반열람실이며 2층에는 다양한 교양도서 구비된 일반열람실, 전공학술도서 중심의 과제도서실, 불교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소장하고 있는 불교학자료실이 자리해 있다. 3층에는 전문학술지와 국내·외 정기·부정기 간행물, 신문등이 비치된 정기간행물

### ◇ 교양과정 이수학점

구분	해당대학과	불교, 문과사범(수고, 체고, 가교제외)인문과학(미술사외목 제외)	법 사회 과학 행정 사회 복지	경 상 공과(농경) 상	이과, 농과(농경 제외), 공과, 자연과학(수고, 가교제외)	사범(수고, 가교), 자연과학(수고, 가교)	예 술 학의 과	한 의 과
인 문 과 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기타 계열	인문과학을 제외한 분야에서 최저 20학점이 상을 균형있게 채워 이수한다	사회과학을 제외한 분야에서 최저 20학점이 상을 균형있게 채워 이수한다	사회과학을 제외한 분야에서 최저 18학점이 상을 균형있게 채워 이수한다	자연과학을 제외한 분야에서 최저 6학점이 상을 균형있게 채워 이수한다	자연과학을 제외한 분야에서 최저 18학점이 상을 균형있게 채워 이수한다	자연과학을 제외한 분야에서 최저 6학점이 상을 균형있게 채워 이수한다	모든분야에서 최저 26학점이 상을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자연과학을 제외한 분야에서 최저 6학점이 상을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계	20 학점	20 학점	18 학점	6 학점	18 학점	26 학점	6 학점	

\* 교양선택과목 이수제한 완화조치로 소속계열분야에서 6학점까지 이수가 가능 (단, 이과대, 공과대, 농과대(농업경제과 제외), 자연과학대(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제외)는 제외)

주로 교양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을 이수하게 되는 신입생들에게 있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으로 나눠져 있는 교양과목들중 어떻게 교양과목을 신청해야 하는 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위 도표에서는 이러한 교양과정에 대한 선택이수요령으로 서울·경주캠퍼스 각과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여학생회 휴게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 사무실 앞에 있는 여학생회 휴게실은 피아노 등을 갖추고 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항상 개방하고 있다. 또 여학생 감성에서는 전 여학생들을 상대로 상담과 지도를 해주고 있다. **목야실** 과 단위 행사나 동아리 모임·총회 등 행사의 장소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회관 3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총여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수요명화감상'이 실시되는 곳이다. **고전음악 감상실** 바쁜 학교생활로 메말라 가는 정서를 조용한 분위기에서 고전음악과 함께 달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학생회관 2층에 자리잡은 고전음악 감상실이 있다.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동국인이라면 누구나 환영하고 있다. 또한

#### 컴퓨터 실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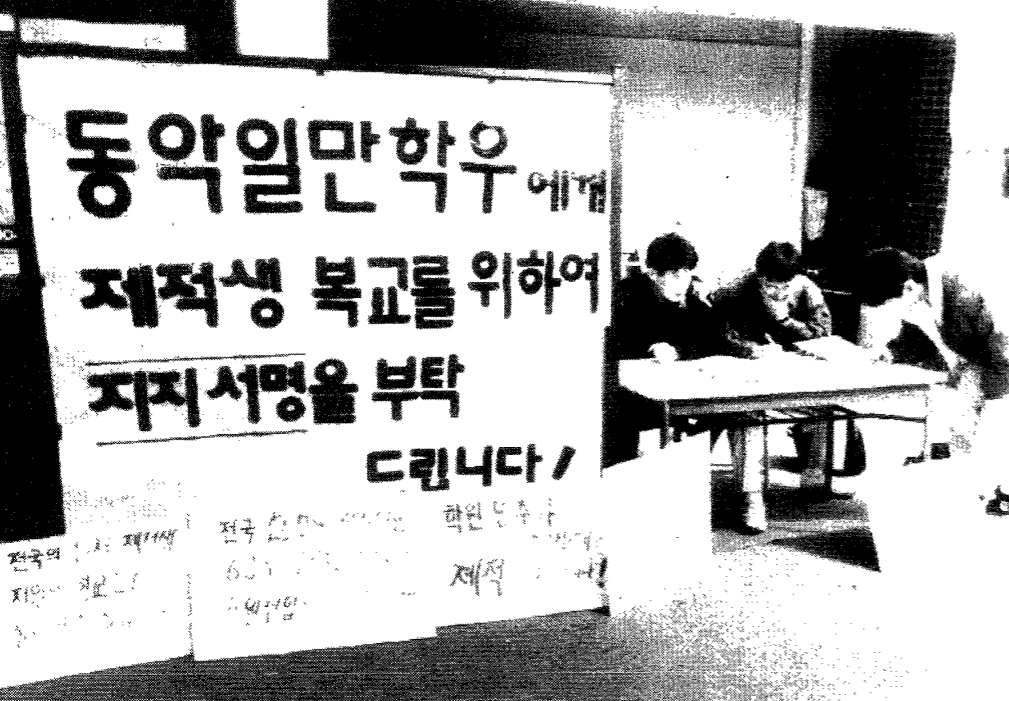
도서관 3층 전산실습실이 수업이 없는 시간동안 전 학생들에게 개방된다. 상경대와 법경대 컴퓨터실도 각각 전공관 2층, 1층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경대 전학우를 대상으로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법경대 컴퓨터실은 법경대 학생들이 대상으로 한다. **학생할인혜택**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동대병원 및 동대부속 한방병원의 진료비 3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학과에서 배부하는 학생 여객 운임 할인증을 발급받아서 통일호 이하 가차의 여객운임 20%가 할인 된다. 학회관 지하 매점, 구두방, 화장품 할인코너, 안경점 역시 학생 30%할인에 적용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박수로·이재환 기자)

#### 메넬말 레코드 음악 감상회를 개최하고 있다.

#### 컴퓨터 실습실

도서관 3층 전산실습실이 수업이 없는 시간동안 전 학생들에게 개방된다. 상경대와 법경대 컴퓨터실도 각각 전공관 2층, 1층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경대 전학우를 대상으로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법경대 컴퓨터실은 법경대 학생들이 대상으로 한다. **학생할인혜택**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동대병원 및 동대부속 한방병원의 진료비 3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학과에서 배부하는 학생 여객 운임 할인증을 발급받아서 통일호 이하 가차의 여객운임 20%가 할인 된다. 학회관 지하 매점, 구두방, 화장품 할인코너, 안경점 역시 학생 30%할인에 적용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박수로·이재환 기자)

### ◇ 6공 제적생 복직을 위한 '동국모임'



◇ 지난 8일부터 6공 제적생 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이 다양한 동국관 앞에서 실시되고 있다

## 6공 5년간 전국 2천여명 제적돼 서명운동 등으로 권리 되찾아야

새 정부의 출범과 때를 맞추어 올해도 특히 제적생들을 위한 복직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번의 복직문제는 예전과는 달리 각 학교별 사업이 아닌 전국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사업이거나 새 정부의 문민정부로의 개혁의지를 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3년 1월10일 현재 총 제적생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원자주화투쟁에 관련한 제적생수는 4백30여명, 구속·수배·입대 등으로 등록하지 못한 미등록 제적생이 8백20여명, 학사제적은 5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수배자를 포함한 6공 5년동안의 총 제적생수는 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제적은 사회민주화, 학원자주화의 투쟁속에서 집권층의 민주진영에 대한 탄압으로 이루어진 결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

비하고자 지난해 12월16일 10여개대 약 70여명의 제적생이 모여 전국 제적생 복직추진위원회(이하 전복추위, 회장-김정호, 동의대4 제적)가 결성되었다. 결성이후의 사업상황은 12월7일 교육부 항의방문, 공개질의서 발송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복직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이것은 제적생의 문제를 여론화시키는 과정이었다. 한편, 본고도 지난 2월11일 제적생 복학추진모임을 결성하여 대자보 사업, 단대별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오늘)까지 서명운동을 마감해서 전복추위에 보낼 예정이며, 전복추위의 차원에서 대정부 탄원, 여론을 일으키는 사업들을 주요기조로 할 계획이다.

또한, 제적생들의 문제를 알리는 광고를 준비하기 위해 모금운동도 준비할 계획이다. 3월18일 단식농성, 선전강화 및 자체 조직력 강화를 위해 21일 전국 제적생 복직 추구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전에 생각되어야 할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93년 1학기 추가등록 마감시일(11월-13일)이 다가온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복학을 원하는 제적생들에게 당장 도움을 줄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2학기까지 끌고 나가는 장기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학교당국과의 마찰도 어느정도는 생각하여야 한다. 정원의 문제가 그리 크게 부딪힐 문제는 아니지만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로, 일반여론의 문제를 짚을 수 있다. 주위에서 보기에 '불량학

생' '성적불량자'로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제적생들 스스로 자신을 '배판아' 등으로 여기기 학대하는 생각을 버리는 일이 중요하다. 이제는 80년 3월, 83년 12월, 87년 7월에 있었던 '제적생 구제를 위한 특례'와 같은 특별조치를 기다릴 시기가 아니다. 복직문제는 학생의 정당한 권리와 복학 투쟁이다. 따라서, 학생에게 불리한 학칙은 개정되어야 한다. 제적생 복직을 위한 투쟁은 학생의 잃어버린 재능을 되찾음과 동시에 학생들의 투쟁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교육은 치명적인 문제나 다름없으며 복학문제는 단지 제적생들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植)

### 예비군 기본교육 소집공고

향군법 제6조에 의거 93년도 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아 래

- 1 교육대상 본고 예비군 전원(교직원 및 재학생 학사, 박사과정)
- 2 교육대상 제외자 가. 93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 나. 93년 1월 1일 이후 동원훈련을 필한 자 다. 86년 12월 31일 이전(전역 7년 이상)에 전역한 일반사.병.보충역에 해당되는 자 라. 85년 12월 31일 이전(전역 8년 이상)에 전역한 장기사.이상 간부에 해당되는 자 마. 미필 보충역
- 3 대학별 교육일정

대 학	교육일정 및 장소	대 학	교육일정 및 장소
경 상 대	4 9(금) 본교	이 부 대	4 12(월) 본교
공 과 대	4 20(화) 219연대	공 과 대	4 21(수) 219연대
공 과 대	4 13(화) 본교	불교, 예술대	4 14(수) 본교
공 과 대	4 22(목) 219연대	문과, 이과대	4 23(금) 219연대
법 과 대	4 15(목) 본교	사 법 대	4 16(금) 본교
사 회 대	4 26(월) 219연대	대 학 원	
농 과 대	4 26(월) 219연대	교 직 원	4 27(화) 219연대

※각각 캠퍼스로 교육일정 및 장소변동 불가
- 4 교육장소 가 본고(중앙관) 개별 도하 나. 219연대(노고산에 있는 중로, 중구 예비군훈련장) 1) 구파발 전철역에서 시내버스 156번 북한산성 경유 송추행 탑승하여 20분정도 소요 (156번 삼전리콜, 일일경유 차량 탑승금지) 2) 구파발 전철역에서 송추쪽으로 300m지점에 학교버스 대기(07:30분까지)
- 5 교육기간 08:00-17:00(07:30분 이후 도착자 대기시간 이용 불가)
- 6 복 장 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부 미착용자는 귀가시킴)
- 7 휴 대 품 증명서(학생증, 주민등록증, 열거구)미 소지자는 귀가시킴
- 8 유의사항 가. 훈련기간 중 국가고시, 입원, 천재지변(불의사고)발생 시 즉시 관계서류제출 나. 93년 1학기 졸업(수료), 휴학자는 교육원에도 무효처리됨으로 교육소집 통지서 즉시 반납 요망 다. 등록지연으로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자는 즉시 비상계획대로 연락 요망 라. 기간내 교육소집통지서 수령 및 교육일정을 준수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직장에비군 연대장

### 협 조 문

쾌적한 학습공간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내 차량 출입통제를 '93. 3. 8(월)부터 시행하고자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 음

1. 학생 자가용 등교 금지(단, 신체 부자유자는 출입증 발급: 총무과)
2.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적극 권유
3. 야간 교내 주차 금지(차량 파손 우려)
4. 업무용 외부차량은 정문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출입증을 교부받아 출입
5. 신규 발령자(교수, 강사, 조교)는 별첨 양식에 현황을 기재하여 각부서 계장 날인하에 총무과로 접수하여 차량스타카를 배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 현곡학술상 논문 모집

동국대학교 개교 87주년을 맞이하여 경상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곡학술상'을 제정, 다음과 같이 학술논문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다 음

1. 논문분야: 경상계통(각 학과 전공별)
2. 응모자격: 서울캠퍼스 경상계열 재학생(학부)
3. 논문분량: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PC프린트도 가능함)
4. 시상내용: 가. 본상(1명) ...상장 및 상금(오십만원) 나. 가작(2명) ...상장 및 상금(각 삼십만원)
5. 논문마감: 1993년 4월 30일
6. 논문제출처: 경상대학 교학과(TEL. 260-3302)
7. 시 상 일: 1993년 5월 8일(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대학 교학과로 문의바랍니다.

경상대학장

### 학생증 교체 발급

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 업무가 전산화함에 따라 학생증에 바코드를 부착하여야만 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이 가능하므로 학생증 양식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 발급을 공고하오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 아 래

- 1 재발급 대상: 재학생 및 복학생, 편입학생 전원
  -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소속대학 교학과
  - 3 신청서 유의사항: 등록금 납입영수증 및 규격사진(여권용사진) 1매
  - 4 신청기간: 1993. 3. 13까지
- \* 교체 발급후 분실자:
1. 도서관 열람과에 분실처리 신고
  2. 장학과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신고
  3. 재발급 수수료 2,000원 납부
- \* 학생증 분실후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학생처장

### 납입금 연장 수납안내

1993학년도 제1기분 학부 재학생 납입금을 다음과 같이 연장수납합니다

1 납부기간: 1993년 3월11일(목)-3월13일(토)

2 납부처

구 분	납 부 처	대 상 학 생
서울 및 경주캠퍼스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전산처리된 교지서를 소지한 학생 (전산으로 장학처리된 학생 포함)
서울캠퍼스	조흥은행	(1)정규교 수혜자로서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
	국민은행	(2)등록금 고지서와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하여
경주캠퍼스	경주캠퍼스	차액만 등록
	경리과	(2)복학생

3. 기타

- 1) 등록금 고지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지정 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음시 등록무효로 학적이 상실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 경리과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 민족문화의 흐름

# 민족문화...자주성 실현에 앞장

이것이 바로 민족문화의 위기를 자주성 실현에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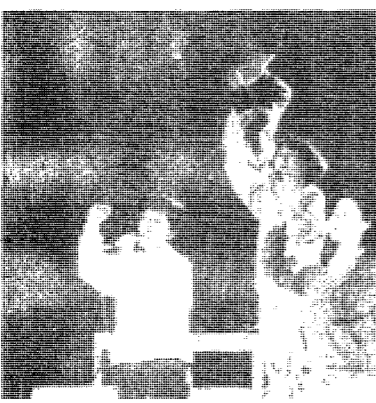


민족문화의 위기를 자주성 실현에 이끈다

민족문화의 위기를 자주성 실현에 이끈다

민족문화의 위기를 자주성 실현에 이끈다

민족문화의 위기를 자주성 실현에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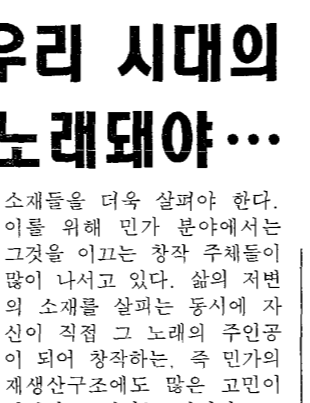
우리의 삶에 스며있는 아름다운 노래 발골이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의 삶에 스며있는 아름다운 노래 발골이 시급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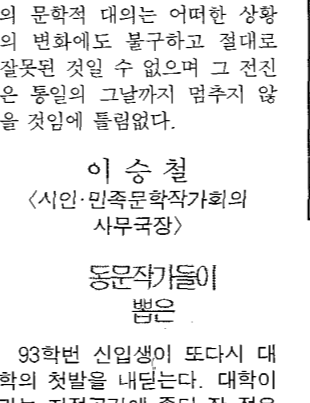
우리의 삶에 스며있는 아름다운 노래 발골이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의 삶에 스며있는 아름다운 노래 발골이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의 삶에 스며있는 아름다운 노래 발골이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의 삶에 스며있는 아름다운 노래 발골이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의 삶에 스며있는 아름다운 노래 발골이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의 삶에 스며있는 아름다운 노래 발골이 시급한 문제이다

## 진정한 문민문화

### 정재형 (연극영화학과 교수)

열마전 대 통령이 취임 하고 본격적으로 문민정 부시대가 막 을 올렸다. 새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유행하게 된 말이 바로 그 '문민' 이 란 말이다. 그동안 열마나 이 말을 쓰고 싶 어했는지. 길을 가는 곳마다 글이 쓰인 곳마 다 이 단어가 안 들어간 곳이 없다. '문민'이란 말을 부정하고자 하는 뜻은 없 다. 하지만 이렇게 유행하기만 하고, 너도 나도 아전인수적으로 의미도 없이 사용하기 만 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스럽다. 열마전 통령에서 '어머니'란 연극이 공 연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군사통치시절 금 지된 연극으로서 공연이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문민 시대로 접어드는 문화계의 첫 신호탄이다. 이 연극이 상징적으로 공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탄압의 대상이었고, 군사 통치이념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노 동운동에 대해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연극이 공연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신문지상에도 게재되고 한참 물의를 빚었던 '어머니'의 아들'이란 영화도 생 각이 난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 영화인들이 의욕적으로 만들어 대학원에서 상영했던 이 영화는 연극 '어머니'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 고 있었다. 당시 이 영화는 용용성을 띄고 있었다하여 금지당했고, 대학에서는 학원에 투입된 전경들과 상영추천학생들간의 몸싸움 이 치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현행법상 비제도권의 영화가 상영되는 것 은 상당히 까다롭다. 왜냐하면, 법적 조항이 란 것은 애매모호해서 해석하기에 따라 코에 걸린 코걸이요, 귀에 걸린 귀걸이식으로 설 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만들어진 사 부 '부방에서'로 위어진 백석 시집이 그것이다. 분단이라 는 암울한 현실을 거치면서 사 장될 뻔한 백석의 시를 이동준 시인이 모아서 편찬해 냈다. 시대의 기록과 삶의 후속함 은 늘 문학과 문학인에게 압박 을 가해왔다. 백석시집도 여지 없이 그 과정에서 시각 비법함을 감수당했고 백석 특유의 민족적 주체성이 간파돼 버렸 다. 백석의 시들은 자신의 삶 의 터전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시작됐다고 판자 이동준 시인 은 전한다. "평방편을 중심으로 모국어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애쓴 모습이 시 곳곳에서 엿보인다"는 추천사인 신경림 이 지금 이 남한땅의 진정한 민중시인의 한사람이라면 백석 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 한반도의 지적성과 향토성을 가장 절개 풍겨온 순수민중시 인이라 평할 수 있겠다. <말과 침묵(센터 3,500원) > <역사 앞에서(창작과 비평사 5,000원) > <백석시집(창작과 비평사 3,500원) >

## 함께하는 우리 시대의 노래해야...

함께하는 우리 시대의 노래해야...

## 이승철

(시인·민족문화작가의 사무국장)

## 동문작가들이 뽑은

동문작가들이 뽑은

## 93학번 신입생이 또다시 대학의 첫발을 내딛는다.

93학번 신입생이 또다시 대학의 첫발을 내딛는다.

## 새내기에게 권하는 책



새내기에게 권하는 책

## 溫故而知新?

하늘 천까지 겁을 현 누루황 훈장님의 회초리를 통해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에 3만여종씩 출판되는 신간 서적들 신문, 잡지, TV...

신속하게 정리된 정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첨단 설비가 당신을 도와 드립니다.

### 전통과 첨단에의 만남 교보문고

교보문고는

- 14개국 700개 거래처에서 수입한 7만종 30만권의 책을 외국 서적관에 갖추고 있습니다.
- 지난 100년간 구미 유명대학의 학위논문, 학술자료, 정기간행물들을 첨단 정보실에 갖추고 있습니다.
- 총면적 24.7km의 서가에 15만종 150만권에 달하는 국내의 모든 서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 회원제 교보 북클럽을 운영하며 통신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 국내 각종 문화행사의 예매권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도서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각급 연구소, 학교, 기관, 기타 단체의 도서구입 업무에 도움을 드릴 특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의 신간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교보문고

서울시 중로구 중로1가 1번지 전화: (대) 730-7891

# 학내 공간의 합리적 재배치 시급

## 교수연구실, 실습실등 효율적 이용이 바람직

학내 절대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야간강좌 정보관리학과와 신설로 인한 과학생회실과 컴퓨터실. 신규교수가 영입된 수학과와 통계학과 교수연구실 등이다.

야간강좌 정보관리학과와 수학과 학생자치공간과 실습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가 신설돼 신입생을 맞이할 상태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박정진·무역4)는 관

제과와 이부대 교학과에 협조 의뢰서를 발송.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수연구실과 학생회실과 컴퓨터실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박정은 "교수연구실과 학생자치공간은 동일선상에서 고민돼야 하며 야간강좌 뿐만 아니라 동국대 전체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고 공간 재배치를 주장했다.

또한 통계학과와 경우 신규 교수 영입시 교수연구실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자치공간 컴퓨터실에 연구실을 마련하고 컴퓨터실은 세미나실과 통합했다.

이과정에서 학교당국은 학생자치공간에 대해 학생회와

아무런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컴퓨터실을 교수연구실로 지목해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학과 학생회(회장=김덕현·3)는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이 '무조건 배려'라는식의 학교당국의 태도 때문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과와 경우 올해 학과평가제의 대상학과로 선정돼 오는 6월중으로 실험기자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위한 공간확보가 선행되지 않

은 상태에서 이 공간확보를 위한 논의와 함께 과학관의 합리적 공간 재배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교의 한 관계자는 "교수연구실을 위해 창고까지 개조할 정도로 절대공간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동국대 학내 문화관이 건립되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불편하더라도 기다려야 하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실 부속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관1층

차고를 개조해 90주년 기념사업회 사무실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공간의 부족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의 발견과 재배치가 필요하고 또한 학교당국이나 학생의 모두 명목상 유지하고 있는 공간은 합리적 공간활용을 위해 과감히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신규교수 연수회 '선과 생활' 특강

신규 교수연수회가 지난 6일 오전10시 정각원에서 민병천 총장. 신규교수 1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간단한 학교소개와 함께 권기중(불교학)교수의 '선과 생활'에 대한 특강. 강담회 등이 있었다.

### ◇등록금책정준비위원장 이상호 군을 만나

## 학내민주대연합 통해 동국중흥 전개할 터



단학신투쟁의 고두보를 확보하는 협상을 벌였다.

—예년과 달리 등록금 고지서가 학교와 협의하여 발송된 것의 의미는.

—총학생회는 앞으로 동국의 구성원인 교수. 직원과의 연대를 통한 학내민주대연합건설을 통해 동국중흥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런 기초속에 학교.학생이 동의한 할부부는 교수. 직원과의 연대의 발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학내민주대연합이란 무엇인가

—동국발전의 대의와 의지를 가진 교수. 직원. 동문. 학생들의 연합체를 말한다.

—향후 동국중흥운동을 위한 투쟁계획은

—현재 학내민주대연합 건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4월중에는 학내 구성원들의 동국발전의 의지를 모아내기 위한 동국중흥만민당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재정확보를 위한 '학교발전 1백억기금' 마련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선순환원사망 매각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등록금투쟁에 대해 상충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방중이라는 기간때문에 학우들과의 전체적 동의와 설득이 없는 속에 협상이 진행된 데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총학생의 동국중흥운동에 대한 선전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유무로 남는다. 앞으로의 투쟁에 있어서는 각 단위의 이해와 의견수렴에 힘쓸 것이며 교양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등록금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등록금 협상중 합의한 학교당국과의 부속합의문 이행은 계속 강하게 나갈 것이며 올해 투쟁은 앞으로의 동국중흥운동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수로 기자)

### 직원노조 93년도 단체교섭안 준비 공개행정 및 참여보장등 다양

직원노조(위원장=장은·관계과)는 3월중순경 있을 단체교섭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대한교원공제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갖고 93년도 단체교섭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교섭안으로는 단체협약조항에 △대학발전 및 운영 참여조항 신설(행정의 공개화를 위한 각종위원회에 직원참여. 총장선출시 직원참여) △인사제도 개선(직제해소) △재해 보상제도 규정 등이며 임금협상 내용으로 △상여급 신설 △기금급 인상 △기능직 직무수당제 개선 등이다.

한편 구체적인 임금인상은 오는 5일부터 오늘(10일)

까지 있는 분임 토론과 8.9일 양일간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노조의 한 관계자는 "93년도 단체교섭은 노조활동의 전환기이며, 조합원들 각자의 주인의식 함양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출발!!

◇93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일 신입생.재학생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해관장에서 열렸다 (이석중 기자)

### 대학원 학생회 조교처우개선 요구 타 대학원보다 조교확보를 낮아

대학원 학생회(회장=최배오·사회학 석사2)는 지난 88년부터 제기해 왔던 조교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11일) 오후 5시 동국관(11306)에서 조교대표자 회의를 소집한다.

이날 회의는 조교증원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각과마다의 조교처우 요구안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학생회장은 "이번 회의의

계기로 그동안 조교확보율이 타학교 대학원에 비해 저조했던 본교 대학원의 조교확보 및 조교처우개선을 위해 학교당국과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원 학생회내 편집부는 기존에 학생회비로 충당하던 신문발행비용을 학교에 요구할 계획이다. 본교 대학원 신문은 1년에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1회 발행액 2백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경비부족문제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 한의대 약사법 개정안 철회 요구

경주캠퍼스 한의대 학생회(회장=박효진·한의대 분2)는 지난 4일 보사부가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본교생 1만5백여명인 상경.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광화문 시위는 보사부가 임박 예고한 약국내 한약장 설치. 한약업자 자격인정서를 자격증으로 변경하는것을 주요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대의 학생회측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민족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이 하나의 기술로 전락, 한의학의 존립여부가

지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 경주 학부위 사업계획. 어학강좌 발표 전문적인 내용의 변화에 중점

경주캠퍼스 제8대 인건복지위원회(위원장=유진석·법4)가 올해 학생복지위원회로 개칭되면서 1학기 사업계획과 16일부터 실시할 어학강좌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기존의 형식적인 사업보다 전문적인 내용의 변화를 꾀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올해 사업을 살펴보면 △교내 주차시설 확립 △건물내 금연구역 설치 △성경동 경기 운동 △합인가맹점 개설 △복지전문 계시

관 마련 △경주지역 복지연합 추진 등 폭넓은 사업을 구상중이며 환경정화에 따르는 수거사업도 진행중이다.

한편 신입생을 중심으로 한 어학과 일정을 알아보면 △도플 아카데미 전과대학교 동시특강 104강좌-원효관(A308) △일본어 강좌(일본어 배그)-원효관(A208)로 오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강의한다. 이는 3월5일부터 접수순 마감할 예정이다.

### 학과소식

법학과 신입생 환영회 겸 학생회 출범식을 오는 12일 보리수다향관 2층에서 실시한다.

전기공학과 신입생환영회가 오는 17일 다함관 지하3층에서 오후 6시에 열린다.

가정교육과 오는 12일 신입생환영회가 오후 5시 여학생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 가교부 임용고시 박미경 동문 합격

92년도 서울지역 교직원 임용고시에서 박미경(가교·91졸) 동문이 사립사범대 가정교육 부문에서 유일하게 합격했다.

이번 임용고시는 매년 국립대학을 우선으로 실시해 그동안 사립대의 경우에는 거의 합격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에도 국립사범대 졸업생 3명을 우선순위로 뽑고, 나머지 1명에 본교 박미경이 합격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본교 유영성(가정교육)교수는 "본교 가정교육과에는 처음있는 일이며, 사립사대 가정교육과의 경우에도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일로 여기며, 사범대 재학생들에게도 격려와 희망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 일문과 김용기 교수 수감거부로 휴직

김용기(일문학)교수가 가의전면 수감거부로 인해 지난 1일 학위취득차 휴직했다.

이번에 문제시된 일문과의 경우 김교수가 임용당시 3순위자로 불합리하게 임용돼 과학생들의 수감 반발로 전공강의를 맡지 못하고 교양강의만으로 기존 강의시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2학기 승진제 임용되어 문제가 된바 있다.

### 야중 생활문화운동 전개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박정진·무역4)는 지난해 '사랑의 날'이라는 소규모 애교실천도입을 확대·변형하여 이번 학기부터 매주 수요일, '미리내골'이란 명칭의 생활문화운동을 실시한다.

이전의 '사랑의 날' 행사는 야간강좌 학생들이 뜻을 모아 동국관주변을 매주 월요일 청소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미리내

### 야중 생활문화운동 전개

골'은 그동안의 활동을 포함하여 학교기를 야기, 폐휴지 재활용 운동 강의실 환경개선등보다 광범위한 생활문화운동차원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이승필(경제3)은 "이 '미리내골'이 야간강좌학생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운동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사는 만사(?)**

○...세상사람들이 강조하는 '문인정부'의 바람을 타고 동아에도 이를 흉내내는(?) 과감한 인사조치가 취해져 어리둥절한자가 었그제 같지만, 또다시 일부 인사개편이 취해졌다는데.

지난 2일 입학식 당일 식을 앞두고 여인이 병명만 일이 발생해 학교관계자들을 궁궁중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고.

사연인즉 모대학원장이 2명으로 식장에 등장할뻔해 동국의 인사조직현실을 개탄케해.

이에 개혁의 동맹자로 나서기를 거부하는 모교수 한바디 "시대적 분위기의 개혁바람을 탄 현 동국의 개혁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표현처럼 개혁이란 개혁이라'며 비꼬기도.

어떤 동아리가 좋아요

○...새내기들의 발걸음이 학내곳곳을 요란스럽게 재학생

들은 '개구리 울렁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속담처럼 새내기의 생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대학이 중사회에 비유되는 것은 당연지사이거늘 전공공부만이 아닌 대학생활의 보람과 참사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동아리여거기를 찾아 다니는 새내기의 표정을 은 어느새 등

"정말 이래도 되나?"

○...등록금협상이 마무리되고 합의문까지 발표된 요즘은 '뒷간에 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는 말이 실감나는 때인 듯.

이 같은 생각은 등록금인상률이 15%로 결정되고 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보이는

지금까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학교당국의 관례(?)가 또다시 적용되는 듯해 염려스럽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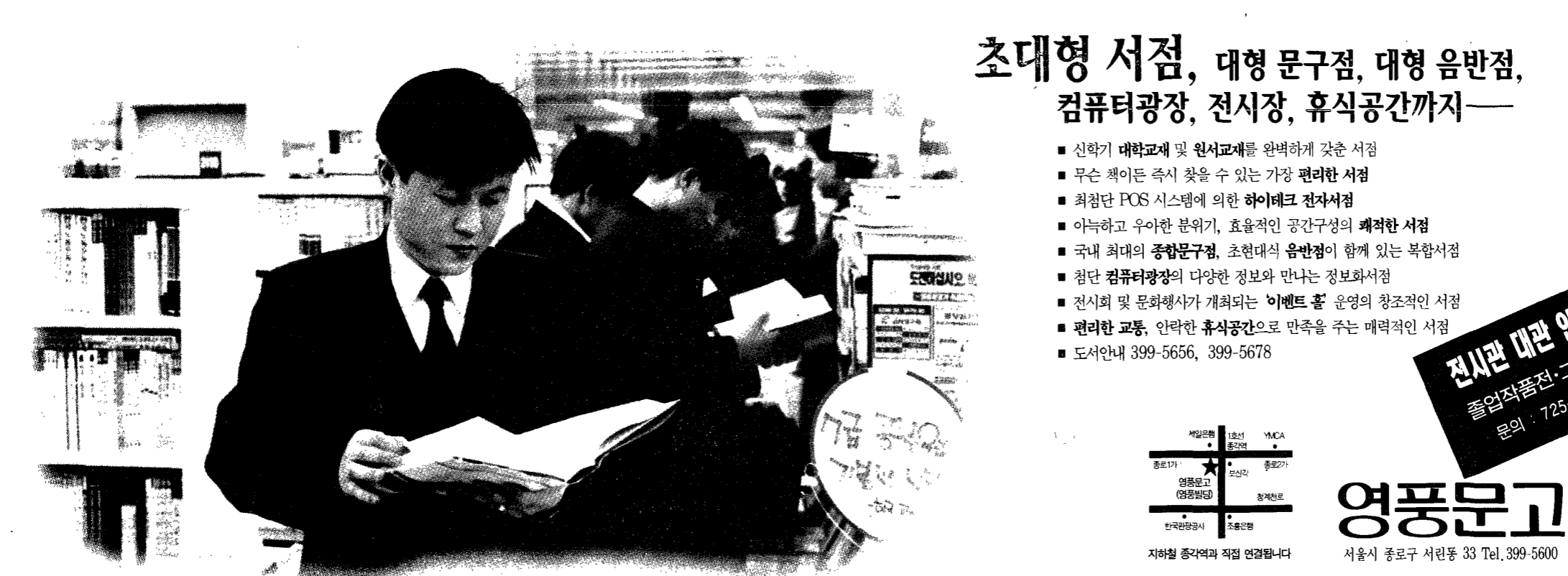
불날의 진디밭 태우기(?)

○...은발공예전 지난 5일 매운은 대표팀 귀불놀이로 해충도 박멸하고 동절기 방재시설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소시적 이발매풀이온 운동대산과 들을 태워막던 기억을 살린 한 학우가 학생회관앞 잔디밭에 불을 놓아버려 단단히 고생한 이는 수위아 저씨를 비롯한 학생과 직원들로 불끄느라 고생한것 보다는 동원된 소화기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결국 소화전이 동원된 대규소 소화전까지 감행하는 모습은 본 한 학우 "한쪽에선 아노현상에 한쪽에선 화재경적으로 오늘 잠자리는 편지 않겠네요."

# 영풍문고는 대학인과 함께 미래를 만듭니다



초대형 서점, 대형 문구점, 대형 음반점, 컴퓨터광장, 전시장, 휴식공간까지—

- 신학기 대학교재 및 원서교재를 완벽하게 갖춘 서점
- 무슨 책이든 즉시 찾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서점
- 최첨단 POS 시스템에 의한 하이테크 전자서점
-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 효율적인 공간구성의 쾌적한 서점
- 국내 최대의 종합문구점, 초현대식 음반점이 함께 있는 복합서점
- 첨단 컴퓨터광장의 다양한 정보와 만나는 정보화서점
- 전시회 및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이벤트 홀 운영의 창조적인 서점
- 편리한 교통, 인력한 휴식공간으로 만족을 주는 매력적인 서점
- 도서안내 399-5656, 399-5678

**전시관 대관 안내**  
 졸업작품전·그룹전  
 문의 : 725-7858

**영풍문고**  
 지하철 종로역과 직접 연결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Tel. 399-5600

### 생활문화운동

# 지속적·대중적 실천의 한해

생활문화운동이라는 새로운 실천 운동이 대학가에서 제기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93년에 들어와서도 어김없이 각 대학마다 생활문화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하고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공론적 기초 아래 각 학내실정에 알맞은 실천영역을 고안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쉽게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한편 올 93년부터는 월별로 특색 있는 사업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생활문화운동의 대내외적 홍보와 대중화에 주안점을 둔다고 한다.

3.4월에는 생활문화장터 개설, 현 책방의 상설화, 중고교교원 등의 알뜰시장을 마련하고 오는 5월에는 신춘문예축전기간 중 신춘지역 5개 대학과 연대하여 건강한 신춘문화 형성을 위한 대중제한마당을 준비한다.

교의 경우 지난해 이후 학생복지위원회와 총학생회 차원에서 생활문화운동 사업을 받아안아 운동의 활성화

이든, 사정없이 이틀부터 하루는 연 세인의 자유로운 사생활의 모습이다

이것은 변화된 운동의 흐름에 표면적으로만 다가가기 급급하여 활동주체가 제대로 서지 못했고 학생대중과의 실천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대서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위해서는 기간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는 가운데 생활문화운동에 대한 좀더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생활문화일꾼의 발굴과 조직

93년 각 단위 학생회가 생활문화운동실천을 그 공약으로 내세웠으나만큼 합리적인 모습의 성과물들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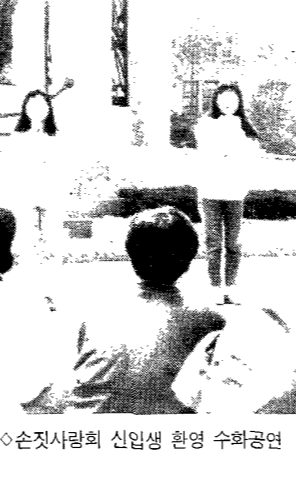
생활문화운동을 단지 일회성사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생활전반의 퇴폐적 소비문화와 예술적 시대주의 문화를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공연분과 동아리 신입생 환영공연 한창

"음메 반가운 귀여운 93세대를 환영해요" 등의 화려한 플래카드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93년 신입학기가 시작된다.

'탈'에서는 "단순 풍자나 현실성이 결여된 유희감은 피하고 전문적 문예이론을 토대로 대중과 공감"하는데 공연의 의의를 두며 경주페스티벌 민중노래패 "음메"은 "신입생들이 접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삶과 사회의 모순점을 폭로"하는데 초점을 맞춰 단순히 보여주기식 공연이 아닌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으로 이갈 계획이다.

전신사 공연을 이용하여 의도하는 뜻을 보다 쉽게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3월말에서 4월 초 공연예정이나 공연분과와 동아리 연합공연과 기자제 미비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좀더 적극적으로 꾸준한 학교측의 지원과 배려가 아쉬운 상태다.



손짓사립의 신입생 환영 수화공연



## 공동T 제작방법 전형 마련해야

예년과 변함없이 각 과나 동아리에서 단체물품이나 공동T를 제작할 시기이다.

이런 가운데 생활문화운동에 대한 좀더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생활문화일꾼의 발굴과 조직

93년 각 단위 학생회가 생활문화운동실천을 그 공약으로 내세웠으나만큼 합리적인 모습의 성과물들을 기대한다.

인용도 없고, 덩핑제품이나 의류업체 게고품들이 단체T용으로 유입되어 늘 제품의 질적인 위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어려움을 상쇄시킨 전총련 지원사업단인 '개구장'이 지난해 매장을 마련하여 점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격과 질이 담보된 전문업체를 발굴하여 일관성 있는 단체물품 주문방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단신

### 신간안내

◇꽃다의 메아리...부처님과 더불어 원음의 삶, 동체자비의 삶이 가장 우리다운 인생살이임을 이야기할, 불교사상, 신행문제, 미국에서의 불교 및 우리 것의 재인식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광출판부·4천5백원)

◇열려라 PC...PC초보자의 컴퓨터 입문서로서 초보자가 알아야 할 내용과 최신 버전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컴퓨터의 구조, 조종, 스노의 기초, 프로그램의 설치방법, 아래한글 바이러스의 예방과 치료, 모뎀통신 등이 실려있다. (연말출판사·1만 원)

### 공연안내

◇사라의 법정...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성' 그 성의 올바른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는 빈태적 풍조를 깨닫는 단 한 다. '즐거움 사라'의 주인공인 사라를 무대에 올려 법정공판 분위기를 재현한다. 4월5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연주소극장, 747-4900.

### 강습회

◇장산꽃에 영화학교...장산꽃에는 영화의 이해를 넓히고 비평적 안목을 갖기 위해 영화학교를 개설한다. 영화관람에서 직접 일하는 강사를 초빙해 현실속의 영화이론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 알아들시다 광고인성 발작 증상

최근 각 가정마다 컴퓨터의 대량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대학생사이에서도 컴퓨터사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세의 예방은 어두운 방을 피하고 화면에서 2m정도 떨어져 앉고, 30분이상 계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가격과 질이 담보된 전문업체를 발굴하여 일관성 있는 단체물품 주문방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격과 질이 담보된 전문업체를 발굴하여 일관성 있는 단체물품 주문방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축 입학 축하합니다.

# 오뚜기정신으로 공부한 보람!

입학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지칠때마다 오뚜기정신을 발휘한 때문이겠지요. 오뚜기도 그렇게 품질제일주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3년간의 인내와 노력 끝에 얻은 합격의 영광보다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로 인정받고 있는 오뚜기의 명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